角筆 符點口訣의 意義와 硏究 方法

李丞宰(가톨릭대)

1. 머리말

이 글은 角筆로 기입된 符點口訣의 몇 가지 의의를 정리하면서 그 연구 방법을 간단히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한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조정하여 우리말 단어로 새겨 읽은 구결을 흔히 釋讀口訣이라 한다. 그런데 2000년 7월 초순에 새로운 유형의 석독구결이 발견되었다. 小林芳規(德島大學 교수, 廣島大學 명예교수)와 西村湖子(松山東雲女大 교수)가 내한하여 角筆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발견된 것이다. 구결학회에서는 南豊鉉 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이 자료 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기존의 석독구결은 문자의 일종인 口訣字를 이용한 데에 비하여 새로 발견된 구결은 각종의 點이나 線을 이용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 점과 선은 보통의 문자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李丞宰(2000)은 이를 符號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이를 이용한 석독구결을 符號口訣이라 부르기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南豊鉉(2000)에서는 點吐口訣이라는 독창적인 용어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符點口訣이라는 용어를 새로이 제안하고자 하므로 이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게 될 것이다.

부점구결 자료는 필기도구의 종류에 따라 角筆口訣과 毛筆口訣의 둘로 나뉜다. 각필은 상아, 사슴뿔, 대나무 등을 뾰족하게 깎아 만든 것이고 모필은 붓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발견된 부점구결 자료에는 각필로 기입된 것이 많으므로 이 글에서는 각필 구결을 위주로 서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필을 이용하여 朱墨으로 기입한 자료가 오히려 자료의 선명도에서는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부점구결의 여러 의의를 되새겨 보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국어학적으로는 11-12세기의 국어 자료를 다량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에 해당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문자학적 의의도 아주 크다. 李丞宰(2001다)가 논의한 것처럼 符點이 訓民正音의 字形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부점구결의 연구 방법도 논의될 것이다. 부점구결을 어떻게 판독하고 해독하느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해독에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南豊鉉(2000)이다. 하나의 句節에 여러 개의 點吐가 올 수 있는데 이들을 句節의 끄트머리에 몰아서 찍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를 句節末 懸吐 原則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비롯한 여러 해독 방법에 대해서는 實例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소개하기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본다 하더라도 부점구결 연구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라왔다고 할 수가 없다. 연구 기간이 2년 반에 불과하다는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판독과 해독이 난해하다는 데에서 그 일차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글도 장님 코끼리 더듬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 用語

2.1. 符點, 點吐, 符號

자료를 조사하면서 필자는 공동 조사자인 南豊鉉, 尹幸舜 교수와 더불어 이 자료의 명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간단히 논의한 적이 있다. 日本의 용어인 訓點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다지 내키지 않았으므로 이를 대체할 용어로 무엇을 택할지 고민하게 된 것이다.

필자의 용어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瑜伽師地論이나 華嚴經에 기입된 點과 線은 보통의 文字와 다르므로 이를 강조할 수 있는 명칭을 택한다. 둘째, 기존에 널리 쓰이는 용어에서 적당한 것을 고른다. 이 두 조건에 맞는 것으로 符號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마침 윤행순 교수로부터 일본에서도 符號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李丞宰(2000)에서 符號口訣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1) 가. 文字 : 符號
　　나. 文字口訣 : 符號口訣

그런데 南豊鉉(2000)은 새로이 點吐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독창적인 용어로서 點(또는 線)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 전통의 吐를 살린 명칭이었다. 이 용어의 참신성에 매료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뜩치 않은 데가 있었다. 첫째는 點吐의 吐는 언어 형식인데도 逆讀線, 合符, 각종 境界線 등을 포괄하게 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點吐口訣의 吐와 口訣이 중복된 듯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었다.[1]

그리하여 李丞宰(2001가)에서는 符號와 點吐의 두 가지 용어를 모두 살리면서 언어 형식을 표기한 것과 보조적인 부호를 구별하기로 하였다.

(2)
- 符號口訣 〈
  - 符標 (合符, 逆讀線 等 文字化가 不可能한 符號)
  - 點吐 (文字化 可能 符號) 〉 吐 (實質 言語形式 또는 그 表記)
- 釋讀口訣 〈
  - 點吐 (文字化 可能 符號) 〉 吐 (實質 言語形式 또는 그 表記)
- 文字口訣 — 字吐 (文字로 表記한 吐)

위와 같이 조정하게 되면 일본의 訓點에 대해서 李丞宰(2000)의 符號 혹은 南豊鉉(2000)의 點吐만을 대응시키는 단순한 방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일본에서도 訓點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오코토點과 符號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2)의 符號, 點吐, 符標는 일본의 訓點, 오코토點, 符號에 각각 대응하는 셈이다.

그런데 李丞宰(2001가)의 용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符號口訣이란 용어에는 點과 線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용어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보조적인 符號가 언어 형식을 표기한 點吐보다 오히려 강조된 듯한 느낌을 준다. 더욱이 符標가 생소한 신조어라는 점도 꺼림직하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

1) 물론 南豊鉉(1980)에서는 '漢文 + 吐 = 口訣'이라 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3) 한국의 符點 / \ 點吐 符號 (文字化 可) (文字化 不可)

일본의 訓點 / \ 오코토點 符號

(4) 가. 文字 : 符點
나. 文字口訣 : 符點口訣
다. 文字吐 : 符點吐 → 字吐 : 點吐

(3-4)와 같이 정리하면 일본의 訓點, 오코토點, 符號에 대하여 각각 符點, 點吐, 符號가 대응하게 된다. 새로 제안한 符點은 點吐와 符號를 포괄하는 개념의 용어이다. 符點은 기존의 용어와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點吐나 符號와 유기적 관계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2.2. 鄕字, 鄕字表記, 鄕言, 鄕名, 鄕讀

지금까지는 漢字의 訓이나 音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은 借字表記라고 불러 왔다. 鄕札字, 吏讀字, 口訣字 등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하므로 차자표기라는 용어는 널리 관용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符點口訣이 발견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借字, 借字表記라는 용어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부점구결에 이용된 각종 點과 線은 漢字를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點과 線이 漢字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符點, 符點口訣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한 셈이다.

이 點과 線이 무엇에 기원을 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일찍부터 동양에 點과 線을 사용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 點과 線을 言語 形式의 表記에 알맞게 體系化한 것이 누구였던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그 최초의 체계화 작업은 新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점과 선을 이용한 표기는 결코 借用한 것이 아니다. 新羅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借字, 借字表記라는 용어는 符點, 符點口訣을 포괄하기에 부적합하다.

새로운 용어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음의 方言이다.

(5)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三國史記 卷第46)

이 方言은 三國史記에 이르기까지 우리말 또는 우리말 표기를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었다. 그런데 이 方言을 이 용법으로 되살려 쓰게 되면 우리말 또는 우리말 표기를 뜻하는 方言과 dialect를 뜻하는 方言이 구별되지 않는다. 또한 方言의 方을 이용하여 方字, 方名, 方謠, 方讀 등의 용어를 생성하기가 어렵다. 이 점에서 가장 전통적인 용어이지만 方言을 선택하지 않는다.[2)]

마침 金完鎭(1996:433)은 鄕讀과 鄕字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鄕歌라는 명칭과 더불어 均如傳에 나오는 鄕語, 鄕札, 鄕謠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6) 가. 然而詩構唐辭 磨琢於五言七字 歌排鄕語 切磋於三句六名 (均如傳)

2) 古代의 方言에 대한 논의는 李丞宰(2001나)를 참고하기 바란다.

나. 鄕札似梵書連布 彼土難諳, 彼土之鴻儒碩德 莫解鄕謠 (均如傳)

즉 '鄕'字는 '方'字와는 달리 생산성이 높은 편이다.

이 생산성을 취하여 이 글에서는 借字, 借字表記 대신에 鄕字, 鄕字表記를 택하기로 한다. 鄕字는 漢字를 變容한 우리 문자와 우리가 獨自的으로 創案한 문자를 아울러 지칭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말 또는 우리말 표기를 전반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鄕言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鄕言은 方言과 같은 뜻으로 쓰인 예가 적지 않으므로(이승재 2001:60) 언어 전반을 지칭할 용어로 손색이 없다. 鄕藥救急方의 鄕名도 사용할 만하다. 언어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단어 표기를 지칭할 때에는 鄕名, 鄕名表記가 좋을 듯하다. 최범훈 교수가 제안하였던 借名, 借名表記를 각각 鄕名, 鄕名表記로 바꿔 부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漢字나 漢文을 우리말 구조에 맞춰 독자적인 방법으로 읽는 독법을 鄕讀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우리의 문자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7) 訓民正音(한글) 예) 나랏 말ᄊᆞ미, 여름 하ᄂᆞ니

國字 {

鄕字 ① 漢字 字形 예) 人音[사ᄅᆞᆷ], 夜音[밤], 有叱下是[이샤리]

② 漢字 省畫字 예) ᄂᆞᆨᄀᆞᆫ[혼ᄌᆞᆯ], ᄂᆞᄉᆞᄆᆞ[호리고]

③ 符點字 예) ·, ··, :, ·:, ·̇, -, ㅣ, /, \, ㄱ,)

부점구결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①의 訓讀字와 音讀字 ②의 漢字 省畫字밖에 없었으므로 借字, 借字表記라는 명칭으로 족하였다. 그러나 借字, 借字表記는 ③의 符點字를 포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명칭이다. ③의 符點字는 漢字를 借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 ② ③을 포괄하는 용어로 金完鎭(1996)을 좇아 鄕字를 택하기로 한다.

3. 符點口訣의 意義

3.1. 국어학적 의의

符點口訣 자료는 국어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하여 千年 前의 文字와 言語 資料를 確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初雕本 瑜伽師地論은 千年 前(구체적으로는 1011년 이후) 資料로서 國寶級 價値를 가진다. 古代의 國語 資料가 절대적으로 不足한 현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言語 資料를 찾을 수 없다. 각필 구결의 原典을 整理하고 가공하여 학자들에게 千年 前의 言語 資料를 提供하게 된다면 국어사 서술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千年 前에 기록된 國語 資料, 이 얼마나 소중한 자료인가.

천년 전의 국어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華嚴經寫經造成記(755년)를 비롯한 여러 古文書나 葛項寺石塔記(758년)와 같은 金石文에 나오는 吏讀 資料는 古代國語의 연구에 일찍부터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분량이 많지 않고 단편적인 자료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鄕札 자료도 後代에 기록된 것이므로 一次 資料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 양도 25首에 불과하다. 이에 비하여 符點口訣 資料는 그 양이 尨大할 뿐만 아니라 質的으로도 優秀하다. 符點口訣은 한문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을 보여주므로 이 자료를 통하여 主語, 目的語, 敍述語 등을 두루 갖추고 統辭

的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11세기의 國語 文章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국어학적으로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부점구결 자료는 國語史의 空白期를 메워 준다는 의의를 갖는다. 국어사에서 11세기는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공백기로 남아 있었다. 석독구결과 송독구결 자료가 다수 발견되어 12-14세기의 공백기를 메울 수가 있었으나 11세기는 여전히 공백기로 남아 있었다. 瑜伽師地論의 부점구결은 11세기의 국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공백기를 메워줄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11세기 국어의 공시태를 서술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자료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어 통시태의 기술에도 이 자료는 필수적인 자료이다. 특정 시기의 자료 하나가 역사적 연구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符點口訣은 한국의 口訣史 서술에 基礎가 된다. 瑜伽師地論과 華嚴經의 符點口訣은 매우 정선되어 있고 규칙적이다. 유가사지론 권제8, 권제5, 권제3의 點圖는 상호간에 일치한다. 이것은 法相宗에 통일된 點圖가 마련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周本 華嚴經에서도 권제22, 권제6, 권제34, 권제36, 권제57의 점도가 상호간에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華嚴宗의 점도도 통일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晉本 華嚴經 권제20은 周本 華嚴經과 일부에서 차이가 난다. 法華經 권제1(延大本)의 점도는 유가사지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이전경 2001)고 한다. 이것은 불교의 종파에 따라 구결을 다는 방법이 서로 달랐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구결사의 서술에 宗派의 異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점구결은 句節末에 吐를 몰아서 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점구결이 송독구결(음독구결)로 이어졌음을 말해 준다(南豊鉉 2000). 이것은 송독구결의 전통이 아주 오래된 것임을 강조할 때에 가장 중요한 논거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부점구결이 가지고 있는 釋讀口訣의 속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말 새김으로 한자를 새겨 읽고 逆讀하는 과정이 부점구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부점구결은 석독구결과 송독구결의 속성을 두루 가지고 있기는 하되 석독구결에 더 가까운 자료라고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러한 점도 부점구결의 특성을 논의하거나 口訣史를 서술할 때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3.2. 문자학적 의의

지금까지 알려진 訓民正音 창제 以前의 文字는 대체적으로 한자의 訓과 音을 빌리거나 한자의 省劃字를 이용한 것이었다. 예컨대 鄕札이나 吏讀는 한자를 그대로 이용하되 그 훈이나 음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요, 字吐 口訣은 한자의 省劃字를 이용하여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은 것이다.

(8) 가. 逢次叱 巷中 宿尸 夜音 有叱下是 (慕竹旨郎歌 8)
　　나. 다봇 굴헝긔 잘　밤　이샤리
(9) 가. 百ㄱ 萬尸 阿僧祇ㄴ 陀羅尼乙 以ㅣ尒 眷屬· 爲ㅡㄱ乙ㅅ分 (華嚴 二十五 12-14)
　　나. 온　골　阿僧祇ㅅ 陀羅尼를 뼈곰　眷屬　삼온올 ᄒᆞ며

前者의 예로는 '밤'과 '이샤리'을 각각 '夜音'과 '有叱下是'라 표기한 예를 들 수 있고, 後者의 예로는 우리말 數詞 '온'과 '골'을 각각 '百ㄱ'과 '萬尸'로 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10)의 符號, (11)의 點吐, (12)의 각필 자료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자는 [·], [:], [··], [·.], [.·] 등의 點과 [|], [-], [\], [/] 등의 線이다. 따라서 이것은 전혀 새로운 文字요 表記法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이 표기법을 符點口訣이라 부르기로 한 바 있다. 천년 동안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文字體系가 광명을 받으며 出現한 것이다. 새로운 文字體系가 출현하였으므로 기존의 문자체계 해석 방법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앞에서 借字, 借字表記라는 명칭을 버리고 鄕字, 鄕字表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10) 가. 漢字의 테두리 □ ▭

나. 境界線; 單邊 — {上邊, 下邊} ⌒ {上邊} ⌣ {下邊}) {右邊}

二邊 ⌐{左上} ¬ {右上} ⌞ {左下} ⌟ {右下}

三邊 ⊔ {上邊 無} ⊓ {下邊 無} ⊏{右邊 無}

다. 補助線) > — ⌣ ¬

라. 合符 | {垂直線} / {對角 長線}) {曲線}

마. 逆讀線 ¬ {下向} ⌞ {下向} ⌞ {上向}

바. 分割記入線 ⁄ {對角 上向} \ {對角 下向}

사. 미해독 | {垂直 下向} / {上向} \ {上向} O {圓, 타원}

(11) 가. 單點 ·

나. 雙點 ·· {水平} : {垂直} ·· {斜向} ·. {逆斜向}

다. 三點 ∴ ∵ ·: {三角形} ⋯ ⋮ ·· {直線形}

라. 四點 ::

마. 單線 - | / \

바. 눈썹형 ⊥ ⊦ ⊤ ⊣ ·\ \· /· ·/

사. 느낌표형 -· ·- ! ·, ·, ·, ·,

아. 망치형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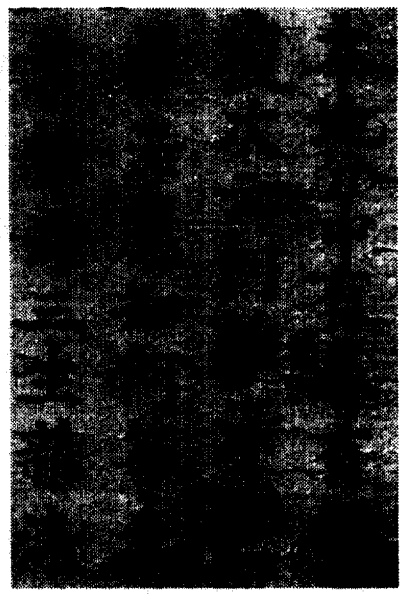
자. '요아'형 ·· ⊤· ·| /·

차. 平行線形 = ‖ // \\

카. 가위형 × 十

타. '∧'형 ∧ ∨ < > ⌜ ⌞ ⊥ ⌝ //

(12) 각필 구결 자료 사진

符點口訣의 文字와 表記法은 우리 조상들의 獨創的 文字 創制 能力을 증명해 준다. 부점구결에 이용된 각종 點과 線은 우리 祖上들이 만들어 사용한 문자로는 最初의 文字이다. 漢字의 획을 생략하여 만든 'ㄱ, 尸, 七, 乙, 氵, 尒, 丷, 宀' 등의 省畫 口訣字도 그 사용 시기가 아주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省畫字는 漢字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符點字와 차이가 난다. 따라서 符點字야말로 最初의 獨創的 文字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데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음을 감지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문자 창제 능력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은 역시 訓民正音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훈민정음은 여느 문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도 아니요, 한자를 變形한 것도 아니다. 훈민정음은 獨創性이 最高로 발휘된 문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獨創性이 發揮된 문자의 예로 符點字를 추가할 수 있다. 세계 문자사에서 [·], [:], [-], [/], [\] 등의 기하학적 기호를 言語 形式의 表記에 最初로 이용한 것은 우리 祖上임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民族의 文字 創製 能力을 증명해 주는 또 다른 예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각필 부호구결은 우리 민족의 탁월한 문자 창제 능력을 증명하는 데에 훈민정음과 더불어 決定的인 資料가 된다.

그런데 (10-11)의 符點을 잘 살펴보면 訓民正音의 字形과 유사한 것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一致를 논거로 하여 李丞宰(2001다)는 訓民正音의 字形이 符點口訣의 點吐와 符號에 起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3] 훈민정음의 기원에 대한 각종 학설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처럼 우리의 文字 傳統에서 起源을 찾은 것은 달리 찾아보기가 어렵다.

符點字는 우리의 文字史뿐만 아니라 東洋의 文字史를 서술하는 데에 貴重한 資料가 된다. 특히 日本의 假名과 訓點의 成立 過程을 기술하는 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日本의 假名이나 訓點이 일본에서 獨自的으로 發生하였다는 것이 일본 국어학계의 정설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角筆 符點口訣이 발견됨으로써 그 起源을 韓國에서 찾을 수 있다는 小林芳規 교수의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小林芳規 교수는 "7세기 말 筆寫된 것으로 추정되는 新羅 元曉大師의 <判比量論> 筆寫本에서 여러 가지의 角筆을 확인했다. 특히 뿌리 '근(根)'자 옆에 片假名을 연상케 하는 'マリ'라는 角筆 文字가 적혀 있는 등 片假名의 起源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

3)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증 작업이 필요하다.

가 된다"고 주장했다.[4] 이러한 논의는 角筆 口訣이 古代 日本의 文字와 表記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뜻한다. 古代 日本語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일본의 假名과 訓點이 일본에서 발생하여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定說을 뒤집는 연구가 잇따라 발표된 것이다. 小林芳規(2001)는 일본의 古書인 華嚴文義要決에 기록된 訓點이 한국의 화엄경에 기록된 符點口訣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日本 訓點의 新羅 起源說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나아가서 小林芳規(2002)는 日本의 假名이 新羅의 口訣字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符點字와 口訣字에 대한 연구는 東洋 文字史 특히 일본 文字史의 敍述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처럼 符點字는 韓國의 訓民正音뿐만 아니라 日本의 假名이나 訓點의 起源을 밝히는 데에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符點字는 東洋 文字史 전반에 걸쳐 핵심적 연구 주제로 등장한 것이다.

3.3. 번역 문화상의 의의

符點口訣 자료는 이미 文化財的 價値를 가지고 있지만 經典 飜譯의 여러 樣相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符點口訣은 漢文 經典을 11세기의 國語로 飜譯하는 한 양식이다. 이 자료는 11세기의 佛經 飜譯 樣相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아주 크다. 우리 固有의 飜譯 文化를 보여 주는 最古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人文學에서 正確한 飜譯의 重要性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 固有의 飜譯 文化가 어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의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예컨대 어느 것이 우리나라 最初의 飜譯物이었는지조차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最初의 飜譯物은 大明律直解도 아니요, 龍飛御天歌도 아니다. 아직 더 연구해 볼 과제이지만 瑜伽師地論에 부점을 달아 飜譯한 것이 아마도 現傳하는 最初의 飜譯物일 것이다. 이 符點口訣 자료는 우리의 飜譯 文化史를 서술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자료이다.

우리의 飜譯 文化史는 아직 정립된 바 없다. 흔히 飜譯이라 하면 日文이나 英文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현대적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漢文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飜譯의 始初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학자들조차도 訓民正音 즉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우리말로 飜譯하는 작업은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이미 있어 왔다. 漢文을 吏讀로 飜譯한 大明律直解 같은 책도 있지만 飜譯에 이용된 대표적인 문자 체계는 口訣이다. 그런데 구결 자료 중에서 符點口訣 자료는 字吐口訣 자료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이러한 사실들을 정리하여 飜譯 文化史를 서술한다면 아마도 符點口訣이 그 첫머리에 올 것이다.

漢文은 漢語의 단어와 어순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言語 構造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한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고 한자를 우리말 단어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符點口訣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瑜伽師地論에 기록된 符點口訣은 固有의 飜譯 過程을 보여 주는 最古의 飜譯 樣式인 것이다. 東國大學校 譯經院에서 유가사지론을 현대어로 번역한 적이 있지만 高麗 初期의 飜譯 양상을 참고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11세기의 符點口訣을 그대로 참고하여 번역함으로써 當時의 飜譯 態度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4) 조선일보 2002년 4월 3일자 1면 톱 기사와 2002년 7월 18일의 구결학회 발표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3.4. 漢字 字形의 연구 자료

각필 문헌은 漢字의 字形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우리는 아직 한자의 자형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자형으로 변화하였는지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고대의 한자 자형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중세에 들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근대 이후에는 어떻게 정착하였는지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 또한 어느 계통의 한자가 우리의 전형적 한자인지 역시 논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 나아가는 데에 각필 문헌 자료는 빠뜨릴 수 없는 자료가 된다. 대개 광학 사진이나 디지털 CD로 판을 떠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차적 자료 정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李丞宰·安孝卿(2002)에서 간단히 거론한 적이 있지만 초조본 유가사지론의 한자와 주본 화엄경의 한자는 그 계통이 서로 다르다. 初雕本은 北宋 開寶勅板(開寶七年 甲戌歲, 974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周本 華嚴經은 國內 傳本 계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國內 傳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내면 韓國 漢字의 古代 原形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국내 傳本이라는 것이 어떤 계통을 말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晉本 華嚴經 권제20의 경우 南北朝 時代에 유행하였던 한자 자형이 상당수가 나오므로(南豊鉉·李丞宰·尹幸舜 2001) 이 자료가 東晋 시대의 자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본 화엄경의 한자 자형은 周本이 漢譯된 則天武后 시대(7세기 말엽)의 한자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본 화엄경의 대표적인 예는 호암본 화엄경(755년)이므로 이것과 성암본 화엄경(11세기말-12세기초)의 한자 자형을 상호 비교해 보는 작업이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國內 傳本' 云云한 것은 정밀하지 않은 태도이다.

4. 연구 방법

4.1. 판독 방법

기존의 字吐口訣 자료와는 달리 角筆 符點口訣은 點과 線을 정확하게 移點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은 부점구결 연구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각필 부점구결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기존의 판독은 肉眼으로 移點하는 방법을 위주로 진행해 왔다. 그런데 肉眼 移點本에는 失手로 미처 移點하지 못하였거나 잘못 移點한 것도 적지 않다. 이러한 短點을 改善하려고 할 때에는 光學 寫眞本과 디지털 CD本을 만드는 일이 필수적이다. 광학 사진본은 點과 線을 잘못 移點한 것을 수정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자료가 국보급이기 때문에 수시로 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특히 이 광학 사진본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광학 사진본을 토대로 디지털 CD본을 만들게 된다. 필름 스캔이나 사진 스캔의 방법을 동원하여 디지털 CD본을 만드는 것이다. 이 CD본은 주지하다시피 部分 擴大가 가능하여 點線의 有無와 種類를 판별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광학 사진본으로 만들어 놓은 각필 부점구결 자료는 유가사지론 권제5와 권제8, 진본 화엄경 권제20, 주본 화엄경 권제6, 권제22, 권제36, 권제57 등이다. 모두가 誠庵本이다. 이 중에서 주본 화엄경 권제22와 권제57을 제외한 자료의 디지털 CD화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5]

각필 자료의 판독에는 각필 스코프(Scope)를 이용하게 된다. 이 스코프는 자료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종이의 凹凸을 뚜렷이 드러내 주므로 각필 자료의 판독에는 필수적이다. 移點에는 보통 3인 이상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필은 보는 각도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각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러한 판독 작업이 후술할 해독 작업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符點의 체계나 點圖를 확인한 이후에는 문맥에 따라 어느 위치에 어떤 부점이 오는지 정할 수 있다. 이것은 해독의 결과를 거꾸로 적용하여 符點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해 나아가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확인 조사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2. 해독 방법

본격적 해독에 들어가기 전에 학회 차원의 컴퓨터 입력 통일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통일안이 만들어져야만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해독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통일안에는 부점의 위치와 형태를 어떻게 기록하여 입력할 것인가, 해독의 과정을 몇 단계로 보일 것인가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현재는 연구자마다 판독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부점의 형태나 종류를 결정하는 방법과 그 위치를 확정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면 연구의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손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컴퓨터에서 검색하려면 입력 방식이 통일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13가)와 (13나)는 부점의 위치를 동일하게 인식한 것이지만 표시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한 방법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혼란을 빚을 수 있다.

(13) 가. 부점의 위치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나. 부점의 위치

15	25	35	45	55
14	24	34	44	54
13	23	33	43	53
12	22	32	42	52
11	21	31	41	51

부점의 위치는 한자의 자형이 다양함에 따라 위치가 조금씩 달리 나타난다. 예컨대 '國'字의 네 귀퉁이는 자명하지만 '上'字나 '大'字의 네 귀퉁이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의 四聲點 위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李丞宰 2002). '上'(上聲)과 '大'(去聲)이 시사하는 바는 字畫을 기준으로 하여 네 귀퉁이를 정한다는 점이다. 공간적 개념인 □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장경준(2002)가 제안하였던 자형별 위치 결정 방안이 정확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5) 이 CD본은 구결학회에서 배포 중이다.

符點口訣의 點과 線를 目錄化하고 그 機能을 定義하는 작업도 기초 작업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단일한 부점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인지 둘 이상의 부점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인지 견해가 달라질 것들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 바로 구현하기 어려운 부점도 나오는데 이를 동일한 자판으로 입력하기 위한 통일안도 작성할 필요가 있다.

同一한 符點은 同一한 言語 形態로 해독한다는 것이 해독의 기본 원칙이다. 예컨대 동일한 위치에 수평선 [-]과 쌍점 [··]이 왔다면 이들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 형식으로 해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의 자료에서 이들을 상호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해독하기도 하나 이것은 해독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點吐의 형태가 달라지면 서로 다른 언어 형식으로 읽는다는 원칙은 여러 자료에 두루 적용될 수 있다.

일부의 학자들은 한국의 부점구결 해독 작업의 진행 속도가 아주 더디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딘 것은 인정하나 일본과 사정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훈점본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에 관심이 별로 없지만 우리는 이 작업을 전제로 하여 해독을 진행한다. 과문의 탓이겠지만 일본에서는 훈점본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일본에서는 훈점본을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나 한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부점본은 그만큼 해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실례를 하나 들어서 부점구결을 어떻게 해독하는지를 보이도록 하겠다. 맨 처음 발견된 유가사지론 권제8의 첫 머리 부분을 예로 들어 본다.

(14) [原文 判讀案의 例] 瑜伽師地論 卷第八 第一張

11	10	9	8	7	6	5
當	差	自	扡	業	雜	復
知	別	性	南	雜	染	次
煩	諸	若	曰	染	應	云
惱	過	分		三	知	何
雜	患	別		生	何	雜
染		因		雜	等	染
由		位		染	爲	施

設建立謂由三種染因故別分性故自
及與門上品顚倒攝
煩惱雜染云何唫
三一煩惱雜染云何染二

(15) [解讀案 및 飜譯案의 例]

A[6]: 復 次[23][7] 云 何[34] 雜 染 施 設 建 立[51, 15(·.)][8] (유가8:1,5)
B[9]: 復 次ㅋ 云 何ㄷ 雜 染 施 設 建 立ㅣ ㅅㅜㅁ[10] (유가8:1,5)
C[11]: 復次ㅋ 何ㄷ 雜染施設建立ㅣ {云}[12]ㅅㅜㅁ (유가8:1,5)

---

6) 이 A는 원문에 기입된 부호를 옮겨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따라서 이 A는 判讀文이라 부를 수 있다. '立'字의 [51, 15(·.)]처럼 하나의 한자에 둘 이상의 점토가 기입되어 있는 때가 많다. 이들을 횡렬로 배열할 때에는 해독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즉 앞에 온 것을 먼저, 뒤에 온 것을 나중에 해독한다.

7) [23]은 점토의 종류가 單點 '·'이고 그 위치가 (13가)의 23임을 뜻한다. 單點은 숫자로만 표기하고 그 뒤에 아무 것도 달지 않았다. 단점이 아닌 것은 [15(·.)]처럼 ( ) 안에 부점의 형태(종류)를 보이었다.

8) [15(·.)]는 마치 [15(\)]인 것처럼 보이나 다음의 두 가지를 근거로 하여 [15(·.)]을 택한다. 첫째, 디지털 화면으로 확대해 보면 [15(\)]일 가능성보다는 [15(·.)]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동일한 형식의 의문문에서 [15(·.)]의 예는 아주 많으나 [15(\)]는 눈에 띄지 않는다.

9) 이 B는 A의 點吐를 字吐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B를 字吐文, A를 B로 바꾸는 과정을 字吐化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10) 이에 대응하는 구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온다.
何ㄴㄱㄹ 聞正法圓滿ㅐㅣ {云}ㅅㅜㅁ

11) 이 C는 字吐文을 우리말 語順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이 단계에 오면 符點이 어느 漢字에 붙어야 하는지, 語順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어느 한자가 不讀字인지 다 드러난다. 말하자면 字吐 釋讀口訣 자료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한 것과 같다. 이를 字吐 解讀文이라 부르기로 한다.

12) 不讀字는 이와 같이 { }로 묶어서 표기한다.

D[13]: 復次의[14] 엇ᄒᆞᆫ올 雜染施設建立(이)다 호리고 (유가8:1,5)
E[15]: 어떻게 여러 염오(煩惱) 등의 일어남을 시설하여 세움[雜染等起施設建立]이라고 하느냐 하면

A: 謂 由[ㄱ] 三 種 雜 染[34, 43(/)][16] 應 知[42(\),[17] 51] 何 等[34(/)] 爲 三[51, 15(·)] (유가8:1,5-6)
B: 謂 由[ㄱ] 三 種 雜 染乙 ㄱ入ᄆᆞ 應 知ᄒᆞ ㅣ 何 等ᄂᆞㄱ乙 爲 三ㅣ ㅅᄉᆞㅁ (유가8:1,5-6)
C: {謂} 三種雜染乙 由ㄱ入ᄆᆞ 知ᄒᆞ 應ㅣ[18] 何 等ᄂᆞㄱ乙[19] 三ㅣ {爲}ㅅᄉᆞㅁ (유가8:1,5-6)
D: 三種雜染을 삼온ᄃᆞ로 알옴[20] 맛다[21] 엇 다ᄒᆞᆫ올 三(이)다[22] 호리고 (유가8:1,5-6)
E: 세 가지의 염오인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A: 一 煩 惱 雜 染 二 業 雜 染 三 生 雜 染[51] (유가8:1,6-7)
B: 一 煩 惱 雜 染 二 業 雜 染 三 生 雜 染ㅣ (유가8:1,6-7)
C: 一 煩惱雜染 二 業雜染 三 生雜染ㅣ (유가8:1,6-7)
D: 一 煩惱雜染 二 業雜染 三 生雜染(이)다 (유가8:1,6-7)
E: 첫째는 번뇌의 여러 염오요 둘째는 업의 여러 염오요 셋째는 남[生]의 여러 염오이다

A: 煩 惱 雜 染 云 何[21?(-), 15] (유가8:1,7)
B: 煩 惱 雜 染 云 何?? ㅁ (유가8:1,7)
C: 煩惱雜染 何?? {云}ㅁ (유가8:1,7)
D: 煩惱雜染 므스고? (유가8:1,7)
E: 번뇌의 여러 염오라 함은 무엇이냐 하면

---

13) 이 단계는 해독문을 正音으로 고쳐서 나타낸 것이다. C를 D로 바꾸는 과정을 正音化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D를 진정한 의미의 해독문이라 할 수 있다. 앞의 字吐 解讀文과 구별할 때에는 正音 解讀文이라 부르기로 한다.

14) 이 '-의'는 15세기의 특이 처격에 해당할 것이다.

15) 여기에는 東國譯經院의 유가사지론 現代語 飜譯文을 옮겨 놓았다. 부분적으로 이 번역문을 修正한 곳도 있다.

16) [34]는 '雜染'에, [43(/)]은 '由'에 통합되는 점토이다. '由'에 통합되는 점토를 이처럼 '染'에 적어 넣은 것은 점토를 句나 節의 끝에 몰아서 찍었기 때문이다(南豊鉉 2000). 이 현상을 밝힌 것은 부호구결의 해독에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이를 李丞宰(2001가)에서는 句節末懸吐 原則이라 부른 바 있다.

17) 이를 'ᄒᆞ'으로 읽어야 할지 'ᄆᆞᄒᆞ'으로 읽어야 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18) 자토구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이 가장 많이 나온다.
廣ㅣ 說尸入ㄱ 知ノᄒᆞ 應ヒㅣ

19) '何'의 바로 뒤에 오는 '等'에는 다음 예와 같이 '-ᄂᆞㄱ乙'이 붙거나 '-ㅣᄂᆞㄱ乙'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何ᄆᆞ 等ᄂᆞㄱ乙 五ㅣㅣ {爲}ㅅᄉᆞㅁ (유가 20)
何ᄆᆞ 等ㅣᄂᆞㄱ乙 菩薩摩訶薩尸 聞藏ミノᄉᆞㅁ {爲}ᄂᆞナヲ尸入ㄱ (華嚴 一 3)
여기서는 유가사지론을 따라 [34(/)]를 '-ᄂᆞㄱ乙'로 읽어 둔다.

20) 유가사지론 자토구결에서는 항상 '其相乙 知ノᄒᆞ 應ヒㅣ'로 나오므로 '知'를 새겨 읽었는지 음독하였는지 불투명하다. 여기서는 석독하여 '알옴'으로 읽어 둔다.

21) 이처럼 '應ㅣ'를 '맛다'로 읽는 것은 이승재(1995)를 참고하기 바란다. '應'을 不讀字로 보지 않는 논거로 '應[11]' 즉 '應ᄎᆞ(유가8:1,12-3)'를 들 수 있다. 필자는 'ᄎᆞ'를 지정문자로 간주하므로 이에 따라 '應'을 '맛-(<맞-)'으로 읽는다.

22) 계사 '-이-'를 표기하는 점토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임의로 적어 넣어 이해할 수밖에 없다.

A: 嗢 拕 南 曰[25(-)] (유가8:1,7-8)
B: 嗢 拕 南 曰尸[23] (유가8:1,7-8)
C: 嗢拕南 曰尸 (유가8:1,7-8)
D: 嗢拕南 니롤 (유가8:1,7-8)
E: 우다아나로 말하리라

A: 自 性[31] 若 分 別[31] 因[31] 位[31] 及 與[42] 門[31] (유가8:1,9)
B: 自 性ㅅ 若 分 別ㅅ 因ㅅ 位ㅅ 及 與ㄷ 門ㅅ (유가8:1,9)
C: 自性ㅅ {若} 分別ㅅ 因ㅅ 位ㅅ {及} 與ㄷ 門ㅅ (유가8:1,9)
D: 自性과 分別와 因과 位와 다ᄆᆞᆺ 門과 (유가8:1,9)
E: 제 성품과 나누어 가름과 원인과 자리와 그리고 문이며

A: 上 品[31] 顚 倒 攝[31] 差 別[31] 諸 過 患[31, 51] (유가8:1,9-10)
B: 上 品ㅅ 顚 倒 攝ㅅ 差 別ㅅ 諸 過 患ㅅ ㅣ (유가8:1,9-10)
C: 上品ㅅ 顚倒攝ㅅ 差別ㅅ 諸 過患ㅅ ㅣ (유가8:1,9-10)
D: 上品과 顚倒攝과 差別와 諸 過患과다 (유가8:1,9-10)
E: 나은 품위와 뒤바뀜의 동아리와 차별과 모든 허물이니라

A: 當 知[51] 煩 惱 雜 染[33] 由[ㄱ] 自 性[34, 43] 故[55] 分 別[43] 故[55] 因[43] 故[55] 位[43] 故[55] 門[43] 故[55] (유가8:1,11-2)
B: 當 知ㅣ 煩 惱 雜 染ㄱ 由[ㄱ] 自 性ㄹ ᄭ 故ᄉᆞ 分 別ᄭ 故ᄉᆞ 因ᄭ 故ᄉᆞ 位ᄭ 故ᄉᆞ 門ᄭ 故ᄉᆞ (유가8:1,11-2)
C: 當 知ㅣ 煩惱雜染ㄱ 自性ㄹ 由ᄭ 故ᄉᆞ 分別ᄭ 故ᄉᆞ 因ᄭ 故ᄉᆞ 位ᄭ 故ᄉᆞ 門ᄭ 故ᄉᆞ (유가8:1,11-2)
D: 반ᄃᆞ기 알(오)다[24] 煩惱雜染은 自性을 삼(온)ᄋᆞ로[25] 故며 分別로 故며 因으로 故며 位로 故며 門으로 故며 (유가8:1,11-2)
E: 알아야 하리라 번뇌의 여러 염오는 제 성품 때문이요 나누어 가름 때문이요 원인 때문이요 자리 때문이요 문 때문이요

지금까지 아주 간단한 예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느낌이 없지 않다. 이처럼 장황하게 된 데에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점은 차후의 연구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5. 마무리

23) 이를 '-ㅎ尸'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25]가 '-尸'에 대응되는 예가 많아서 일단 '-尸'을 택하기로 한다.
24) 자토구결에서는 '當ㅅ 知ᄀᆞㅣ'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5) '由'를 '삼-'으로 새기는 것은 南豊鉉(1999)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데 '삼-' 어간에 '-로'가 바로 통합되는 것은 형태론적 구성이 어그러지므로 그 사이에 동명사어미 '-온'을 넣어서 읽었다.

참 고 문 헌

金完鎭(1996), 文字論에 대한 附說(『음운과 문자』에 수록), 신구문화사.

南權熙(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淸州古印刷博物館.

南豊鉉(1980), 口訣과 吐, 『國語學』 9.

南豊鉉(1999),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연구, 태학사.

南豊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南豊鉉·李丞宰·尹幸舜(2001), 韓國의 點吐 口訣에 대하여, 『訓點語와 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語學會.

吳美寧(2002), 日本 中世의 論語訓讀, 『口訣硏究』 9.

李丞宰(2000), 새로 발견된 각필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2000.9.

李丞宰(2001가), 周本 『華嚴經』 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李丞宰(2001나), 古代의 '方言'과 그 類似 指稱語, 『새국어생활』 11-3, 국립국어연구원.

李丞宰 (2001다), 符號字의 文字論的 意義, 『國語學』 38, 國語學會.

李丞宰(2002), 옛 文獻의 각종 符號를 찾아서, 『새국어생활』 12-4, 국립국어연구원.

李丞宰·安孝卿(2002),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 —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9, 口訣學會.

이전경(2002), 각필자료 법화경 권1에 대하여, 제12차 국어사자료학회 학술발표대회(2002.8.16) 발표 원고.

장경준(2002), 『瑜伽師地論』 角筆口訣에 대한 管見,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2년 2월) 발표 원고.

小林芳規(2002가),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口訣硏究』 8.

小林芳規(2002나), 新羅經典に書き入れられた角筆の文字と符號, 口訣學會 第26회 共同硏究會 發表論文集.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韓國遺存の角筆文獻 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訓點語學會.